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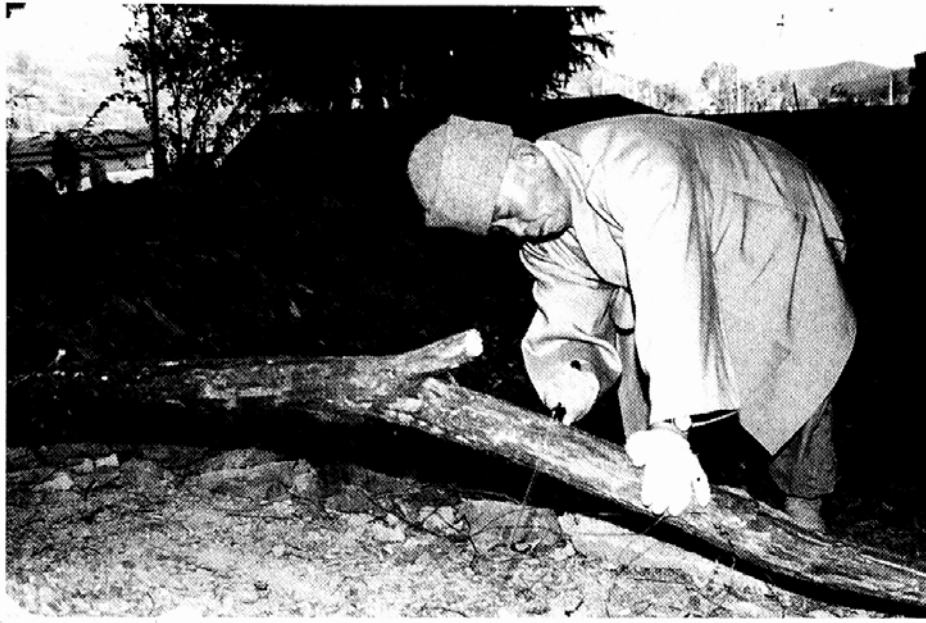
것을 제외하고는 욕심일 뿐이지요. 욕심은 큰 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각종 공공요금 또한 많이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도 기업가와 국민들이 탐의 결실보다는 은행 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한 확장을 꾀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한 불교적 해답은 없는지요.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문제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에는 명예욕 재산욕 식욕이 가장 강하지요. 기업가들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경제도 바로 설 수 없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을 수가 없었지만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야숙단 탐진치' 하면서 부처님 전에 탐진치를 끊게 해달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순자법법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即生 必生即死)' 즉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만 한다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부딪쳐 왔습니까. 조금 하다가 힘들면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지요. 성격들이 급하고 끈기가 없어요. 기업들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에 매달리어 성실과 전문성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어발식으로 확장만 해왔지요. 그래서 오늘날 부도니 연쇄도산이니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의



▷백장스님의 청유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백봉스님이 벼랑에서 운반해온 나무를 지르고 있다.

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회의 각 분야의 원리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과학과 사상, 문화의 발달이 불교와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불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첫째입니다. 마음에는 수천 갈래 수천 그릇이 있습니다. 이중에 서 어떤 갈래 어떤 그릇을 갖느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마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선대조사들의 가

선을 하면 장벽을 넘어서 무한히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환금으로 아무리 큰 보탬을 쌓아도 어느 뎡가는 무너지지만, 한 생각으로 바르게 앉아 정각을 이루면 세세생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인의 자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단이나 스님들이 승단의 위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경선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사부대중의 호평을 받기도 했지요. 아직도 종단분규의 불유쾌한 기억이 체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화합의 승가상 구원을 위해 종단전체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요.

▲좋은 일입니다. 승가가 민주적인 공의에 의해 운영되면 다툼이 없습니다. 자기주장은 조금씩 숙이고, 서로 회통하면 모든 일을 불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출가승행자들은 두타행(頭陀行)을 했습니다. 두타행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번뇌를 여멸 수 있게 해주지요.

첫째, 인가와 떨어진 곳에 살고, 둘째 결식하며 수행에 전념하고, 셋째 시주한 사람의 빈부를 가리지 않고, 넷째, 생명유지와 포교전법에 필요한 양만 섭취하고, 다섯째, 과식하지 말고, 여섯째, 때가 아닌 때 먹지 말고, 일곱째, 낚고 해진 옷을 입고, 여덟째, 세뭇의 옷만 소유하고, 아홉째, 무덤결에서 무상관(無常觀)을 두고, 열번째 나무아래 기거하고, 열한번째, 지붕없는 곳에서 기거하고, 열두번째 단정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요.

두타행은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신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서로 험뜯고 서로를 죽이는 것은 상제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 근저에는 죽을

“ 자기 주장은 조금씩 숙이고 서로 회통하면 민주적 운영 ”

에 대한 공포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철학과 종교가 나왔지만 범부들에게는 항상 집착으로 남는 부분이지요.

어느 한곳에 집착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불자들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옆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암흑이요, 저항할 수 없는 공포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죽으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물을 모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어리석음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 순리대로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열린 귀와 눈으로 깨어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수처작주(隨處作主) 하야 합니다. 밖의 형상에 흔들려 다니며 주체를 상실하지 말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진실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대담=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o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환암스님

‘천지는 춘하추동을 향하게 하며 만물을 양육해 낸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다. 나 또한 말없이 좋아한다.’

공자의 말씀이지만 자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명을 임태시킬 줄 알며 부르는 법 없어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무렵이 아니겠는가.

벌써 입동이다. 풀먹인 무명옷 사이로 제법 날카로운 바람이 파고 든다. 늘 푸름직한 알았던 산하대지가 한생각 둘러 옷 갈아 입더니 이제는 그 허물어져 귀찮은 듯 던져버린, 그야말로 말이 필요없는 계절의 한 모퉁이에 내가 서 있다. 중생의 삶 또한 버리고 또 버려 결국에는 그 마음조차 버려야 하거늘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무수한 기억들의 잔흔이 참으로 부끄러운 날, 무심코 쳐다 본 달력의 동그라미속에서 동안거 계절일이 며칠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직 장판때조차 묻혀 보지 못한 몸뚱이리지만 그래도 결제철만 되면 몸이 후끈 달아오를 수 있다는 것은 이십여년간 한철도 빠짐없이 정진하며 푸른 청산의 심장과 흰 구름의 사지를 담은 한 선객의 넉넉한 그림자가 있어 발심의 고삐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철 빠짐없이 20여년 안거 세상사 꼬달림 없는 선객

지난 가을 추석연휴가 끝났지만 그래도 귀경길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던 날 밤늦게 환암스님이 찾아왔다. 대장경 전산화작업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종림스님과 대중들에게 심심한 지리산 송이 버섯의 맛을 한시라도 빨리 전달하기 위해 혼잡한 버스속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며 달려온 것이라 했다. 태백나 우편 등의 전달방법도 있었겠지만 굳이 밤늦은 시간이라도 바삐 달려와 아침일찍 길 떠나며 환히 웃는 환암스님의 뒷모습에서 세상사에 꼬달림없이 오직 한길을 가는 선객의 여유로움을 볼 수 있어 촉촉한 산이슬이 가슴에 적시고 스쳐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줄 알고 함께 누릴 줄 아는 그의 성품은 오랜 대승생활에서 습득된 체질의 습관이 아니라 태어남에서부터의 천성인줄 알기에 자연을 닮아가는 허허로운 그의 걸음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달리리 부지런한 환암스님. 그래서 인지 옷조차 늘 무명옷만 입는다. 보통 스님들이 입는 옷이 무명 등과 같이 풀을 해서 입는 것과 가지 등으로 세탁해서 그냥 입는 옷이 있는데 환암스님에게는 기지못이 없다. 풀은 손질하기 여간 까다롭지 않다. 세탁을 해서 바짝 말린 다음(그렇게 하지 않으면 옷감이 상한다) 풀을 먹고 다시 바짝 말린 후 풀을 뽀여 응달에서 서서히 말려 골게 개어 자근 자근 밟아줘야 한다. 그런 다음 다림질을 하게 되는데 다림때도 옷 안쪽 이음새 부분의 날개부터 다린 후 바깥쪽 면을 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간 부지런하지 않고는 풀을 입

을 수 없다. 그에게는 이 무명옷 두어벌과 겨울을 나기 위한 누비옷 한벌만 있을 뿐, 잡다한 옷가지가 없는, 간결한 선객의 필수품만 있을 뿐이다.

‘일심이 청청하면 일신(一身)이 청정하고 일신(一身)이 청정하면 다신(多身)이 청정하고 이와같이 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리라’ 라는 부처님 말씀이 <원각경>에 있다. 환암스님을 대하다 보면 그와 같음을 느낄 수 있다.

환암스님에게는 일체의 사뭇이 없다. 항상 부지런히 갈고 닦아 수행의 군더더기 없는 선객의 기풍으로 진솔한 내면을 가감없이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스님이기에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수행의 척도가 넘어지고 발심이 된다. 그 많은 세월을 선방에서 정진하여 왔음에도 법랍이 결정지 않게 미소년의 풍조된 얼굴 모습으로 대중을 편안하게 할 줄 아는 스님. 약간의 수줍은 듯 어린 웃음을 항상 웃고 있지만 걸림없는 선객으로



수행하여 왔기에 가슴속에는 부처의 칼날을 항상 예리하게 갈고 닦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몇해전, 은사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못이겨 주지소임을 한 두 해 살다가도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거침없이 뿌리치고 선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칼날같은 성품을 지닌 스님이다. 그러한 스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매년 안거철만 되면 그의 수행을 담고자 하는 마음에 몸이 뜨겁게 달구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스님들의 겨울나기가 시작된다. 지금쯤 환암스님은 결망 하나 훌쩍 짊어진 채 산길을 걸어 선방으로 향하고 있으리라.

“천지로 집을 삼고 백운으로 벗이 되어 높은 산 깊은 골을 몇 굽이나 지냈던가” 연운종첩 천만리에 어느 곳이 성지인가? 늦가을 산중의 바람결에 흩날려가는 무수한 낙엽들의 망상이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되듯 지금 나의 망상 또한 새로운 발심의 씨앗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와 함께 울겨 올 용맹정진하는 환암스님과 모든 스님들의 ‘한소식’이 크게 울려 뚫 중생들의 고통과 번민을 단번에 떨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본다.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이성적 ‘마음’ 분석 벽 만나지만 참선은 벽넘어 무한정진 가능”

적인 성장. 허세만 부린 탓이니 누구 원강하겠습니까. 원인없는 결과 가 없습니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나 모두가 오로지 자기 본분사에 충실하면서 절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업가와 국민들도 소욕족(小欲之足)하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중시 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생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출 많이 해서 힘들게 벌어들인 자 또 새나기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밑바진 독에 물붓기식이지요. 소박하고 아무진 마음가짐과 생활패턴이 정착된 이후야야 벌면 버는 만큼 축적이 되고 경제도 차츰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옹기 먹고 평등과 자비심으로 자기자신을 돌보면서 살면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에 불교바람이 일고 있음

를침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까지 통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서양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데 칸트나 데카르트 아타스미스 베이컨 파스칼 등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연구한 찌 꿩죽지는 못했어.

그러나 부처님은 수 천년 전 간단 명료하게 해석했지요. 그것은 바로 탐진치 3독(毒)만 제거하면 본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심내는 마음) 진(성내는 마음) 치(어리석은 마음) 삼독이 마치 먹구름처럼 청정한 본성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마음 가운데 탐진치만 잘 다스리면 깨달음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들어 가면 장벽이 부딪칩니다. 문자장벽 언어장벽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참

Advertisement for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 (Essentials of the Master's Teaching, Five-Color Radiance). It features a large calligraphic character '佛' and text describing a collection of Buddhist art and teachings.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2)2242-0331 and (02)2242-0255, and an email address unjang21@kornet21.net.

Advertisement for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Introduction to the Creation of Jizang Bodhisattva). It includes an image of the Bodhisattva and text explaining the reasons for creating the image and the materials use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31)533-4405 and (031)532-3444, and a website URL www.buddhopia.com.

Advertisement for '해외대학입학안내' (Overseas University Admission Guide). It lists admission requirements for B.A. and M.A. programs, including application fees, entrance exams, and deadlines.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2)722-5083 and (02)722-4606, and a website URL www.buddhopia.com.

Advertisement for '법당 경비 전용 불전함' (Specialized Fireproof Safe for Dharma Hall). It features an image of the safe and text describing its features, including fireproofing, security, and ease of use.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phone numbers (043)647-2378 and (011)467-1472, and a website URL www.buddhopia.com.